

한국 고대 유물에 대한 시각적 환유의 재해석

- 3세기~ 6세기 상형 토기와 토우를 중심으로 -

Reinterpretation of Visual Metonymy in Ancient Korean Artifacts: Focusing on Figurative Pottery and Clay Figurines from the 3rd to 6th Century

김은주(Eunju Kim)¹ | ¹(제1저자)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교수 | kej1220kr@hanmail.net

김건(Geon Kim)² | ²(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 godardkim@jbnu.ac.kr

목 차

1. 서론
2. 시각적 환유(Visual metonymy)
3. 상형토기와 토우의 조형에 대한 기호학적 함의와 시각적 환유 분석
4. 상형토기와 토우의 현대 시각예술에서 재해석 방향
5.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고대 유물에 내재된 조형성 및 상징 체계를 현대 시각예술의 창작 맥락에서 재해석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 틀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과 시각 문화적 해석을 결합한 다층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 3~6세기 한국 고대의 상형토기와 토우에 나타난 시각적 환유의 작동 방식과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상형토기와 토우에 나타난 장식적 요소는 단순한 사실적 재현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내면적 욕망과 초월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상징적 조형 언어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언어는 현대 시각예술에서 새로운 감성적 표현 체계로 확장될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형태적 차용에 그치지 않고 내재한 의미 구조의 재구성과 시각화를 요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고대 조형 언어가 현대 예술 실천 내에서 ‘공존’의 문제를 탐색하는 감정적·상징적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영역에서 정서적 공감과 감각적 체험을 중심으로 한 예술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키워드 : 한국고대유물, 조형함의, 시각적 환유, 현대적 재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systematic interpretive framework for applying the inherent formative qualities and symbolic meanings of ancient artifacts to contemporary visual art. Through a multilayered approach that combines theoretical analysis with visual-cultural interpretation,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modes and functions of visual metonymy found in Korean ancient towu (clay figurines) and sanghyeong togi (shape-modeled pottery) from the 3rd to 6th centuri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ncient formative languages may serve as emotional mediators for exploring issues of coexistence in modern art,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an artistic shift toward emotional resonance and sensory experience.

※ Keywords: Korea Ancient Artifacts, Formative Implication, Visual Metonymy, Contemporary Representation

-
- 본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3709)
 - 논문접수 : 2026.02.19. • 최초심사 : 2026.03.14. • 심사완료 : 2026.03.25.

1. 서론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연결하고 미래의 번영을 이끄는 살아있는 자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¹⁾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문화유산은 단순한 보존의 대상을 넘어, 현대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대 유물의 형상 속에 내재된 상징적 가치는 현대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인 시각 언어로 전환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적 가교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유물의 역사적 연원과 고증에 집중해 왔으며, 시각 예술적 관점에서 유물을 현대적 조형 원리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각적 텍스트로 재생산하려는 창의적 현대 시각예술로의 변용을 위한 해석과 체계적인 의미 생성 과정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적 환유(visual metonymy)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 고대 유물의 장식을 현대적 시각예술 언어로 연결하는 가교적 가치에 주목하고, 유물의 조형적 특성과 의미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호적 함의 분석과 시각적 환유의 작동 방식을 통해 고대 유물의 조형 언어에 담긴 신앙·자연관·사회 구조와 같은 문화적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 시각예술 및 디자인 영역에서 재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 유산과 동시대 시각문화 사이의 접점을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계승과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과거 유산을 단순한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확장되는 문화적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실천적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사회적 의의를 지닌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과 시각·문화적 해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을 토대로 수행한다.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시각적 환유(visual metonymy)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대 시각예술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환유 표현의 기능과 형식적 특징을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고대 조형예술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재정립하며, 한국 고대 유물의 장식에 내재한 시각적 환유의 방식과 기능을 도출하여 현대 시각예술의 활용과 재시각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3~6세기 한국 고대 유물 가운데 상징적 의미와 문화적 맥락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형토기와 토우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상형토기와 토우에 구현된 형상은 단순한 조형적 장식을 넘어, 당대의 사회 구조와 신앙 체계, 자연관, 의례적 인식이 응축된 상징체계(symbolic system)로 작동하며, 의미 전달과 가치 표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호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형 요소를 의미 작용의 과정에서 해석하는 기호학적 접근은 조형 함의 도출에 방법론적으로 적합하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2015)에서 문화유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연설한 문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다. 특히 퍼스(C. S. Peirce)의 기호학²⁾ 이론을 토대로 상형토기와 토우를 대상체, 기호체, 해석체의 삼원적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시각적 형상이 어떠한 대상을 지시하고 해석 과정에서 의미가 생성·확장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김은주, 2020).

본 연구는 두 단계의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핵심 내용을 전개한다. 우선 1차 분석에서는 퍼스(C. S. Peirce)의 기호학 이론을 바탕으로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의 분석 틀을 설정하여, 유물의 장식 요소가 생성하는 기호학적 의미 작용을 검토한다. 이어지는 2차 분석에서는 앞선 결과를 토대로 시각적 환유를 형성하는 인접성, 인과성, 경험적 연계의 논리에 주목한다. 이를 상형토기와 토우의 조형적 특성과 결합하여 고찰함으로써, 각 요소가 의미를 환기하고 사회·문화적 함의를 구성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고대 유물의 조형적 언어 분석에 머물지 않고 그 범위를 현대 시각예술 및 디자인 분야로 확장한다. 상형토기와 토우에 내재된 시각적 환유 원리를 현대적 창작 체계에 적용함으로써, 문화 정체성에 기반한 디자인 콘텐츠 개발의 방향성과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의의를 둔다.

2. 시각적 환유(Visual metonymy)

환유(metonymy)는 그리스어 metōnymia에서 기원하는 개념으로, ‘meta(전환)’와 ‘onyma(명명)’의 합성어이다. 즉, 특정 대상을 직접 지시하지 않고, 그 대상과 인접하거나 연관된 요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기호적 대치(置換)의 수사 기술을 의미한다(김옥동, 1999). 이러한 환유 개념은 언어 표현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야콥슨(R. Jakobson), 프로이트(S. Freud), 라캉(J. Lacan), 폴 드만(P. de Man) 등 다양한 이론가들에 의해 그 적용 영역과 의미가 확장되었다(박현수, 2008).

특히 로만 야콥슨은 언어 체계 내에서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의 작동 원리를 구분하여 제시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임창호, 2004). 그는 언어가 ‘유사성(similarity)’과 ‘인접성(contiguity)’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규정하며, 은유가 유사성에 기반한 연관의 기제라면, 환유는 인접성에 기반한 결합의 기제라고 보았다(야콥슨, 1989). 이러한 관점은 환유를 단순한 언어적 치환이 아닌, 기호 구성의 근본 원리로 재정립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야콥슨은 환유의 특성이 언어 행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의 인지 구조와 사고방식, 문화적 실천 전반에서 관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환유는 인간이 세계를 분류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지각적·행동적 방식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인접의 관계에 기반하여 의미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기호적 작용 체계라고 규명하고 있다(피스크, 1997). 나아가 야콥슨은 환유의 원리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방창형, 2015). ① 공간적·시간적 인접성(spatial/temporal

2) 퍼스는 기호의 형태와 관계없이 그 작용(semiosis)만으로도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소쉬르의 이분법적·평면적 기호학에 비해 실제 상황에서의 맥락을 중시했기 때문에,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ontiguity)으로 물리적·시간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한 대치 관계 ② 인과적 인접성(causal contiguity)은 대응하는 사물과 사물의 특징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연계에 기반한 환유 ③ 연계성에 의한 대응(relational correspondence)의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경험적 연계를 통한 의미 작용으로 분류하였다. 야콥슨의 환유에 대한 정의는 기호학적 분석과 문화 해석의 핵심 도구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시각예술 및 문화 기호학 분야에서도 환유가 중요한 의미 구성 방식으로 논의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표 1〉 야콥슨의 환유 기법과 예시³⁾

환유의 기법	예시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	① “성당에서 전해드립니다” ➡ 종교적 예배공간 ➡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의 새로운 의미 : 공간의 인접성
인과적 인접성	② “그는 사약을 마셨다” ➡ 죽음 : 인과적 인접성
연계성에 의해 대응	③ “슬픈 책” ➡ 슬픈 내용을 의미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Lakoff & Johnson)도 마찬가지로 환유를 은유와 더불어 인간 사고 체계의 핵심적 기제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들은 환유를 단순한 언어적 수사 기법이 아니라, 개념 구조를 조직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인지적 도구로 보았다(김옥동, 1999). 예컨대 환유는 전체 개념 중 특정 부분을 부각하여(part-whole relation)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측면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주의 집중 기능(highlighting)을 동반한다고 논하였다(최아영, 2010). 이러한 인지적 선택은 현실 세계의 복잡한 정보 가운데 의미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 정보 처리와 의미 구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환유의 개념을 파악한다.

따라서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의 환유는 하나의 개념이 그것과 연관되거나 인접한 다른 개념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기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용의 의미가 압축되고(cognitive compression), 문화적 함의가 축적되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유는 정서적·미학적 효과를 유발하는 의의가 있다. 이들은 또한 환유는 문자 언어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감각 경험, 지각적 분류 체계, 그리고 사회적 실천 전반에서 작동하며, 특정 문화권의 인식 방식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기호적 장치로 기능하는 것으로 언어학을 넘어 시각예술, 문화 기호학, 디자인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옥동, 1999).

아래 〈표 2〉⁴⁾는 선행 연구되었던 시각예술에 활용된 환유의 방식과 기능에 대해 파악하여 재구성한

3) 박성창의 『시들지 않는 수사학의 꽃 은유와 환유』에서 야콥슨의 환유 기법과 예시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4) 현대 시각예술에 투영된 환유의 양상과 발현 원리를 파악하고자 광고, 순수미술, 그림책 분야의 환유 활용 사례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특히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환유의 기능적 핵심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시각예술 전반에서 작동하는 환유의 방식과 기능을 구체화하였다.

것이다. 광고에서는 시각예술에서 활용된 환유는 사물의 상호인접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확장으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며, 특히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 장면과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메시지는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된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 중에서도 그림책은 인접성과 인과성에 기반한 시각적 환유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이야기의 의미를 확장하고 분위기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한편 순수미술 회화에서는 사물 간의 대조와 전복을 통해 의미의 전환을 유도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기호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의미확장과 수용자의 능동적 해석을 촉발하는 환유적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2〉 현대 시각예술에 표현된 시각적 환유의 유형과 특징

방식	내용	기능	효과(특징)
대체와 대리	제품 대신 사회적 문화적 상징을 배치하여 의미를 전환함	- 지시기능: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 대상 지시 - 환기기능: 감정과 상황 연상 및 전환 - 정체성 강화 기능: 이미지 강화 - 문화적 연동 기능: 문화적 맥락과 의미 연결 - 상징적 함의 기능: 기호적 상징성 연결 의미 확장함	- 간접적 의미 전달: 맥락을 통해 의미 암시함 - 대리: 감정이나 상황으로 대신 - 맥락 의존성: 동일 이미지라도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함 - 수용자 참여성: 수용자가 스스로 해석함
부분-전체	특정 장면으로 전체적 가치나 담론을 환기함		
인접	관련 이미지를 배치, 새로운 의미 생성		
대조와 전복	기존 예술 문법 파괴 불편한 이미지로 사고전환		
문화적 기호차용	정치·종교·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기호로 끌어들이어 의미 확장함		

이처럼 시각예술에서 구현되는 환유(visual metonymy)는 단순한 대상의 치환을 넘어, 시각적 대체(substitution), 부분-전체 관계(part-whole relation), 인접성(contiguity), 대조와 전복(contrast and subversion), 차용(borrowing)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방식들은 부분과 전체 간의 상관성에 기반하여 특정 요소가 전체를 환기하도록 하며, 물리적·기능적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미지와 개념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효과를 지닌다.

3. 상형토기와 토우의 조형에 대한 기호학적 함의와 시각적 환유 분석

3.1 상형토기와 토우의 조형적 특징과 함의

3.1.1 상형토기의 조형적 특징 분석

상형토기는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폭넓게 발견되었다. 대부분 동물이나 사물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사람과 함께 표현되기도 했다. 상형토기는 살림집·곳간·배·수레·수레바퀴·신발·등잔 등 물체를 본뜬 것과 말 탄 사람·말·사슴·개·오리·새·말과 오리의 절충형 및 상서로운 동물 등 생물을 본뜬 것으로

나뉜다. 3세기 중엽 이후 제작된 상형토기는 새 모양 토기를 가장 많이 제작하여 부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새는 하늘과 인간 세계를 매개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초기 장송 의례에 많이 사용된 것은 새가 영혼의 인도자이자 초월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 모양 토기의 제작은 4세기에 이르러 대구, 부산, 김해 등 영남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였으며, 이를 무덤에 부장하는 관습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5세기에 들어 새에 대한 상징적 비중이 점차 약화 되면서 상형토기는 보다 다양한 주제와 형상으로 전개되었다.

5세기부터는 말·집·배·신발 모양 등 당시 생활상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상형토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장식적 변화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생활상과 세계관이 토기 조형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운반과 이동에 활용한 배와 수레 모양의 상형토기는 바다와 강, 육로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활발히 교류하던 현실을 상징한다. 집이나 공간 형태의 토기는 안정된 생활과 풍부한 수확물의 보존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처럼 상형토기는 사회의 유지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조형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생존과 안녕을 염원하는 상징체계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6세기에 들어 상형토기는 점차 소멸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23).

〈표 3〉은 상형토기에 표현된 사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의 조형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상형토기의 종류와 조형

상서로운	사물(물체)상		
			
동물상(1)	불잔모양(2)		등잔모양(3)
			
신발모양(4)	집모양(5)	수레모양(6)	배모양(7)
인물 및 동물상			
			
새(8)	말(10)	말을 탄 인물(11)	

상서로운 동물 모양 토기(1)의 ①은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납작한 거북 모양 몸체와 용의 머리 및 꼬리, 그리고 이를 받치는 굽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둥근 눈과 목에는 5개의 타원형 돌기가 장식되어 있으며, 물결 모양의 꼬리 중 볼록한 부분에도 타원형 돌기가 있다. 몸체 앞뒤에는 둥근 고리를 끼워 장식하였고, 꼬리 부분에는 액체를 넣을 수 있는 바리 모양의 깔때기가, 목과 몸체 사이에는 액체를 따라내는 긴 대롱이 부착되어 있다. 상서로운 동물 모양 토기 ②는 풍만한 타원형 몸체와 뿔이 달린 머리를 갖추고 있다. 등에는 몸체 비례에 맞춘 커다란 원형 깔때기가 있으며, 그 뒤편에는 팔다리를 벌린 사람을 배치하되 눈과 입, 성기를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뿔잔 모양 토기(2)는 말 모양과 바퀴가 결합된 형태 위에 V자형 뿔잔이 얹혀 있는 모습이다. 그중 뿔잔 ④는 긴 목과 다리, 짧은 꼬리, 역삼각형 머리 형태 등으로 보아 사슴과 동물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뿔잔 ②는 말의 두상 모양으로 장식되었으며, 별도의 받침 없이도 세울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집 모양 토기(5)의 ①은 기둥을 세워 건물 바닥이 지면으로부터 높게 들리도록 제작된 고상식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지면의 습기와 침수 및 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 위와 창틀 위의 구멍은 액체를 넣거나 따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집 모양 토기 ③은 전체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과 출입문, 보, 대공, 지붕, 그리고 지붕 위에 격자 모양으로 얹은 줄 등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집 모양 토기는 봉헌용 물품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국립중앙박물관, 2023). 수레 모양 토기(6)는 수레바퀴 살이 촘촘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양 바퀴 중앙의 구멍에 바퀴 축을 끼워 실제 바퀴가 굴러갈 듯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배 모양 토기(7)는 유선형으로 제작되었으며, 배 앞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액체를 따르기 쉽게 구성하였다. 토기의 옆면에는 비스듬한 격자(또는 문살)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토기 ①과 ③은 사각형 굽에 구멍이 뚫린 굽다리 위에 배가 얹혀 있는 형태이며, ①은 배 안쪽 뒷부분에 노를 저으려는 듯한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배의 바깥 부분에는 원형 및 심엽형(나뭇잎 모양)의 고리 장식이 달려 있다.

새 모양 토기(8)는 오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과장된 머리 뿔과 풍만한 몸통이 돋보이며, 등 부분의 원통형 구멍을 통해 내부가 비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단에는 사각형 굽 구멍이 있는 굽다리를 두어 안정감을 높였다. 토기를 안전하게 세워두기 위해 아랫부분이 넓은 굽다리를 사용하거나, 토기 ③과 ④처럼 네 개의 다리를 부착하기도 하였다.

말 모양 토기(10)는 사각형 판 위에 말을 얹은 형태로, 안장 부분에는 원통형 잔이 부착되어 있다. 말의 몸체에는 재갈, 안장, 등자(鎧子) 등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말 탄 인물 모양 토기(11) 중 ①은 말에 장식된 다양한 말갖춤(마구)이 특징이며, 안장 위의 인물은 관모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다. 토기 ②는 방울을 든 듯한 인물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①에 비해 간소한 복장을 하고 있다. 이 두 토기는 모두 가슴 부분에 긴 대롱이 달려 있고, 엉덩이 부분에는 구멍이 뚫린 둥근 깔때기가 있어 액체를 담아 따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3.1.2 토우 장식의 조형적 특징 분석

토우(陶偶)는 삼국시대, 특히 신라 권역 토기의 장식 요소로 부착된 소형 입체 조형물을 지칭한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나 소품이 아니라, 당시 사회 구성원의 신앙과 생활상, 상징적 의미가 투영된 물질 문화적 산물로 이해된다(국립중앙박물관, 2023). 발굴 사례에 따르면, 토우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주로 굽다리접시(高杯)의 뚜껑이나 굽다리긴목항아리(長頸壺)의 몸체 등 토기 표면에 부착된 형태로 제작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2023). 굽다리접시의 뚜껑에서는 총 54점의 토우가 조사되었으며, 그중 동물 형상은 41점, 인물 형상은 13점으로 보고되었다. 학술적 연구 자료에 따르면, 토우는 장송(葬送) 의례와 관련하여 인간과 동물의 형상이 조합된 형태로 제작된 사례가 많다.

당시 경주 지역은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동해안과 인접한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동물과의 접촉이 빈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동물 형상 토우의 발달과 도상적 다양성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였다. 토우에 표현된 동물 장식은 단독으로 배치되거나, 토기 뚜껑의 꼭지 주변에 서로 마주 보게 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4>는 토우에 표현된 동물의 유형을 서식 환경에 따라 육상동물, 수생동물, 양서·복합서식 동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우정연, 2020).

<표 4> 토우에 표현된 동물과 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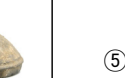
상상의 동물(2종)		용, 신구(몸은 거북, 머리와 꼬리는 용의 형상인 동물)
실존 동물	날짐승(14종)	닭, 오리, 독수리, 갈매기, 매, 앵무새, 호반새, 느시, 가마우지, 두루미, 고니, 원앙, 올빼미, 후투티
	물짐승(10종)	게, 가재, 불가사리, 자라, 거북, 잉어, 메기, 망둑어, 물개, 수달
	물짐승(21종)	개, 고양이, 두더지, 족제비, 양, 염소, 말, 당나귀, 소, 물소, 멧돼지, 호랑이, 표범, 토끼, 사슴, 여우, 뱀, 개구리, 두꺼비, 원숭이, 개미핥기

<표 5>는 고배 뚜껑에 부착된 토우를 사람, 사람과 동물, 동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표 5> 토우의 조형⁵⁾

동물		
	날짐승	물짐승
		
	물짐승과 날짐승	

5)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2023년에 발간한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전시도록 이미지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사람과 동물						
	개·사람	개·사슴·사람	새·사람	말·사람	뱀·사람	표범·게·사람
사람						
	앉은 사람·절하는 사람	서 있는 남자와 누워있는 여자	현악기 연주하는 사람·춤추는 사람	현악기 연주하는 사람	관악기 부는 사람들	

사람 형상의 토우는 1인 또는 2인으로 표현되었으며, 동물 장식과 마찬가지로 대칭 구도 속에 배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대표적인 형상으로는 앉아 있는 사람, 절하는 사람, 남녀의 모습, 춤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 등이 있다. 인물 토우 ⑤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자세,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자세, 양다리를 펼치고 앉은 자세, 춤추는 모습, 그리고 무릎을 꿇고 관악기를 부는 모습 등을 형상화하였다. 각각의 인물은 맡은 역할에 따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대상을 숭배하거나 관악기 연주에 맞춰 의례를 진행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인물 토우는 남성의 성기가 강조된 모습, 성행위 중인 남녀, 임신과 출산, 악기 연주와 가무, 절하는 모습, 기마 인물, 노를 젓거나 짐을 나르는 모습, 슬퍼하는 표정, 가면이나 고깔을 쓴 모습, 그리고 의복을 강조한 표현 등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예술 단면을 엿볼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동물은 당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축이나 사냥감, 또는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생활상은 토우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인물과 동물이 복합된 토우 ②에서는 사냥하는 인물 옆에 개가 함께 등장하는데, 개는 토우에서 인간 다음으로 빈번하게 표현되는 동물이다. 그리고 화살통을 메고 모자를 쓴 채 사냥감을 향해 활을 당기는 사람의 모습, 말 안장에 올라타거나 말 등에 짐을 실은 장면 등은 당시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증명한다. 이처럼 토우에 표현된 장식은 고대인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정신적 지향점을 물질적으로 구현한 ‘시각적 내러티브’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현실 재현을 넘어, 의미 있는 순간들을 내세까지 연장하려 했던 상징적 기록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상형토기와 토우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형태는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세부 표현은 과감히 생략하고 특징적인 부분만을 과장하거나 특정 동작의 결정적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표현하고 있다.

3.2 장식의 기호적 함의와 시각적 환유의 특징

3.2.1 상형토기와 토우 장식의 기호적 함의

상형토기와 토우의 조형적 내용과 표현요소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기호학적 상징체계와 생성된 함의를 분석하여 총체적으로 시각적 환유로 해석하여 <표 6>과 <표 7>에 정리하였다.

<표 6> 상형토기의 기호학적 함의와 시각적 환유 방식 분석⁶⁾

상형 토기의 기호학적 조형 함의			
장식	기호체		함의
	기호내용	의미와 상징	
오리 모양	• 의제사용 • 액체담음 • 가장 많이 사용 • 짝을 이룬 뒤 하나가 죽으면 따라 죽음	• 하늘과 땅 매개 • 권력자 신성성 • 영역 자유로움, 초자연적 • 의리, 행복, 생산, 안녕과 평화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방식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말	기호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 신성시험, 한정된 권력 • 이동수단, 장송의례	• 현세와 내세연결 • 부와 권력, 제왕권력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방식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사람 동물 혼합	기호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 기병의 중요 • 망자를 위한 기원	• 군사적 위협과 권력 • 사회적 권력 가시화 • 주술적, 의례적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방식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불잔	기호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 음료를 마시는 용도	• 부정행위를 알리는 신비한 물건 • 수복, 안녕, 안전 추구 • 주술적 의례적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방식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6) <표 4>와 <표 5>의 기호체에서 도상은 앞에 조형에 대한 서술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표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기호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등잔	• 어두움을 밝힘 • 생활필수품	• 다음 세상 밝힘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기호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신발	• 이동수단 • 생활필수품	• 편안한 삶을 기원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기호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배	• 이동수단, 교류필수 • 새로운 발명도구 • 풍요로운 삶, 토목기술 및 운송기술혁신 기념의 의도	• 집단의 정체성, 권위 • 특권층 기술력의 과시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기호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수레 바퀴	• 이동수단 • 교류필수 • 토목기술 및 운송기술혁신 기념	• 이동수단 • 토목공사, 교류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기호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집	• 생활상, 봉헌품 • 식재료의 중요	• 풍요로운 삶 추구 • 편안과 안락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상형토기 중 오리 형상은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초월적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의리·행복·생산·평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보호적 상징체로 해석된다. 이동수단인 말 형상은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하며, 군사적 위력과 사회적 권위를 표상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이러한 도상들은 망자의 안녕을 기원하고 사후세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돕는 주술적·의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형토기 가운데 소의 뿔 형태를 본뜬 뿔잔은 부정(不淨)을 차단하고 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례용기로 간주 되었으며, 등잔 형상은 어둠을 밝히는 실용적 도구를 넘어 사자(死者)의 길을 인도하는 상징적 조형물로 기능하였다. 또한 신발 모양의 토기는 일상적 필수품을 형상화한 것으로, 사후세계에서 이동과 생활의 안락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배 모양의 토기는 교류와 이동을 상징함과 동시에 풍요로운 삶과 기술적 성취를 표상하는 기념비적 성격을 지닌다. 수레바퀴 모양의 토기는 교통·유통 체계와 토목 기술의 발달을 상징함으로써 사회적 조직화와 변영의 이념을 드러낸다. 더불어 집 모양 토기는 생활 공간의 상징이자 봉헌용 조형물로서 성격을 지니며, 식재료의 저장과 생계의 안정, 나아가 안락한 생활과 평화를 기원하는 공동체적 염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토우의 기호학적 함의와 시각적 환유 방식 분석

토우 시각적 환유와 함의			
장식	기호체		
	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개	• 사냥 • 인간생활 연계, 사육	• 인간동반 • 보호와 인도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사슴	• 벽사 • 길상	• 국가의 태평성대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호랑이	• 성스러운 동물 • 물 불 바람에 관련 • 산신령, 용맹함	• 벽사 • 신화적 민속적 호위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표범	• 기쁜 소식을 알리는 동물	• 길상·벽사·호위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뱀	• 뱀에게 잡아먹히는 장면	• 다산과 풍요 • 재생과 치유, 영원함 • 수호와 지혜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개구리	• 개구리를 문 뱀과 물고기	• 생산의 극대화 • 재생과 치유 • 생명의 순화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거북	• 실재하는 동물,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재	• 주술적 효능 • 북방 수호신 • 천지음양 상징, 상서로움, 심부름꾼 역할과 인도자, 불사(장생)상징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불가사리	• 일부 잘라내어도 죽지 않음	• 신체재생 • 생명력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내용	의미와 상징	함의
사람	• 춤을 추는, 절을 하는, 악기를 다루는 행동, 행진하는 행동 등	• 삶, 복 기원, 공동체	• 계세사상 • 문화적 기호 • 사회 심리적 욕구 • 물리적 생리적 욕구
	시각적 환유		
	연계적 대체, 부분-전체 환유 · 경계초월 · 순환, 윤회		

한편, 토우에 나타난 동물들은 각기 다른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불가사리, 뱀, 잉어, 거북 등은 장수와 생명력, 부활을 상징하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고대 문헌에서도 물고기, 사슴, 용, 뱀 등은 벽사(辟邪)와 길상(吉祥)의 존재로 반복하여 등장한다. 이는 이들이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뱀이 개구리를 물고 있는 장식은 주목할 만하다.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며, 또한 뱀은 재생과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 두 동물의 결합은 풍요로움과 번식 그리고 생명의 순환을 상징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뱀을 남성으로, 개구리를 여성으로 해석하여 이들의 결합을 생명 창조의 원리로 보기도 한다. 토우에 등장하는 동물 중 인간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사례는 ‘개’이다. 개는 사냥 장면이나 어미가 새끼를 물어 나르는 모습 등 생명력과 유대감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개가 단순한 가축을 넘어 인간의 동반자이자 충직한 보호자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징은 개가 망자를 저승으로 호위하거나 인도하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시사한다.

‘말’ 또한 토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핵심적인 동물 형상이다. 삼국시대의 말은 군사적 기동력과 귀족적 위계, 그리고 제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배층의 대표적 상징물이었다. 토우에 표현된 말은 기수와 함께 표현되거나 짐을 실은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실용적인 역할을 넘어 사용자의 사회적 신분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토우의 표현된 동물 형상은 단순한 사실적 묘사를 넘어 주술적·종교적·사회문화적 의미가 결집된 복합적 상징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무덤이라는 맥락 속에서 동물의 형상을 한 토우는 죽은 자를 수호하고 영혼을 인도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는 매개체이다. 이를 통해 당시 신라인들이 지녔던 생명관과 세계관,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깊은 신념을 엿볼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 조류(鳥類)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영적 존재이자, 죽은 자의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상징적 매개체였다. 토우에 묘사된 다양한 새의 형상은 조류가 단순한 생태적 존재를 넘어, 주술적·의례적 중개자(mediator)로서 확고히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뱀, 개구리, 거북 등 지상과 수중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물들 또한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영역의 초월’과 ‘재생’, ‘부활’의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상형토기와 토우의 도상에는 일상적인 장면과 초월적 존재, 혹은 상상적 동물의 이미지가 결합 되어 당시 신라인들이 지향했던 이상적 질서와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장송 의례용 부장품을 넘어, 고인을 추모하고 현실과 초월 세계를 잇는 상징적 조형 언어로 작동한 것이다. 이처럼 조형물 속에는 사후에도 생전의 삶이 지속된다는 계세(繼世) 사상과 더불어, 다산과 풍요, 생명의 연속성을 염원하는 간절함이 응축되어 있다.

3.2.2 상형토기와 토우의 시각적 환유 특징과 기능

상형토기와 토우에 나타난 조형은 단순한 장식적 표현을 넘어, 공동체의 정서와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시각적 기호 체계로 기능하였다. 이들 조형은 길흉화복, 수복강녕, 자손 번영 등 현실적 염원을 담은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정신세계를 시각적 환유(visual metonymy) 방식으로 투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상형토기와 토우에 구현된 동물 및 인물 형상은 ‘영혼의 이동’과 ‘존재의

순환'이라는 세계관적 사유를 매개하는 상징적 장치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조형은 현실의 동물 형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유 체계 속에서 초월적 의미로 전이되며,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치환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그 결과, 상형토기와 토우의 동물상은 생명·죽음·재생·보호·풍요와 같은 근원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환유하는 독자적인 상징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곧 초월과 윤회, 수호와 희망, 생명과 변영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시각적 환유의 표현 방식은 부분-전체 관계(part-whole)와 대체 및 차용의 기법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띤다. 이를 통해 해당 조형은 ① 간접적 지시 기능, ② 감정과 상황의 감각적 환기 기능, ③ 정치·지역적 정체성 강화 기능, ④ 문화적 의미로의 연결 기능, ⑤ 상징 결합을 통한 의미 확장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형적 전략은 인간의 근원적 욕구인 생존, 안전, 소속에 대한 열망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한 결과로 이해된다.

나아가 상형토기와 토우의 조형은 공동체의 변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소속감, 안정감 등의 심리적 욕구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매개체였다. 이는 사회적 지위, 미적 가치, 종교적 신념을 전달하는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으며, 언어로 명시하기 어려운 무의식적 욕망과 정서까지도 조형적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형토기와 토우에 나타난 조형은 당대 사회의 정신적 구조와 심리적 욕구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시각적 환유의 상징체계다. 이들은 현실과 초월, 개인과 공동체, 생과 사를 매개하는 초월성·관계성·감정의 상징적 장치로서, 고대인들이 세계를 인식하고 내면의 욕망을 구체화한 방식이 응축된 시각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 상형토기와 토우의 현대 시각예술에서 재해석 방향

상형토기와 토우에 투영된 시각적 환유는 현대 시각예술에서 새로운 감성 언어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과거의 상징체계를 현대의 사회·심리적 맥락에서 재생산하는 '문화적 번역' 행위로 이해된다. 상형토기와 토우의 조형이 영혼과 신성의 세계를 향한 의례적 매개체였다면, 현대적 재해석은 인간 내면의 감정, 타자와의 관계, 생명과 공존의 문제를 탐구하는 감정적 매개로의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상징의 의미가 종교적 신념의 영역을 넘어 정서적 공감(empathy)과 감각적 체험(sensory experience)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시각예술은 토우의 상징적 형상을 관계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다. 예컨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나타난 개나 말의 형상은 '보호'와 '돌봄'이라는 감정 구조를 매개하는 장치로 재맥락화될 수 있다. 둘째, 상형토기와 토우의 상징 구조는 현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참여적·상호적 공감 구조로 확장된다. 예컨대 관객의 움직임이나 감정에 반응하여 이미지와 색채가 변하는 인터랙티브 설치나, AI 및 AR 기술을 활용해 관객의 정서에 반응하는 '감정 데이터 아트(emotional data art)'로의 전환이 그 예다. 이는 과거 의례에서 공동체가 경험하던 정서적 공명(emotional resonance)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현한다. 이러한 감정의 시각화는 공감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예술과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과 세계를 연결하는 감각적 의례로 기능한다. 셋째, 상형토기와 토우의 상징적

구조를 서사적·생태적 맥락으로 재해석하여 의미를 확장한다. 뱀과 개구리, 새와 물고기 같은 혼성적 생명체들은 생명의 순환, 윤회, 공존의 상징으로 다시 해석하며, 창작자들은 이를 통해 생태계의 연속성과 인간의 존재론적 위치를 사유한다. 결국, 현대 시각예술에서 상형토기와 토우의 시각적 환유를 재해석하는 방향은 ①‘신앙적 상징에서 감정적 공감’으로 ②‘의례적 장식에서 관계적 조형’으로 ③‘물질적 재현에서 감각적 체험’으로 확장되는 변용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대 장식 조형에 내재된 상징성과 조형 언어를 분석하여, 그 의미 체계를 현대 시각예술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한국의 고대 유물인 상형토기와 토우에 나타난 조형은 단순한 장식 요소를 넘어 신앙, 사회적 질서, 자연관을 반영하는 문화적 상징체계로 기능하며, 이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사회적 염원을 시각적으로 표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대 유물의 조형 요소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화적 소통 장치이자, 정체성과 역사성을 환기하는 중요한 창의적 자원이다. 특히 시각적 환유를 통한 의미 전달 방식은 감성적 몰입을 강화하고 서사적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는 디지털 미디어, XR, 패션,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창조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지닌다. 한국의 고대 상형토기와 토우의 조형적 특징을 현대 예술과 디자인에 적용하는 작업은 문화적 연속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 산업 속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창출하는 전략적 접근으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유형의 유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에 고대 조형 전반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문헌 중심의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실제 제작 실험과 사용자 경험을 통한 실증적 검증이 미흡하며, 관람자 반응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정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고고학, 인지언어학, 디자인학을 융합한 체계적 해석들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유물을 포괄하는 비교문화적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디지털 제작 기술을 활용한 실험을 병행하여, 현대적 수용 방식 속에서 고대 조형 언어가 어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산업적 협업을 통해 공공디자인, 문화상품, 관광 콘텐츠 등 실질적 활용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연구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3~6세기 한국 고대 상형토기와 토우 장식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활용은, 단순한 도상적 해석이나 상징 분류의 한계를 넘어 문화적 의미 구조를 재맥락함으로써 동시대적 감수성을 지닌 창조적 문화유산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기초학을 토대로 시각문화 연구를 횡단하는 해석들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 방향이 향후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23).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전시도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김은주 (2020). 전북가야 토기의 표현요소에 나타난 함의적 의미와 디자인 가능성. 디자인융복합연구. 19(2), 91-10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86271>
- 김옥동 (1999). 은유와 환유. 민음사.
- 로만 야콥슨 (1989). 문화 속의 언어학(신문수 역). 문학과지성사.
- 박성창 (2012). 시들지 않는 수사학의 꽃: 은유와 환유. 민음사.
- 박현수 (2008). 수사학의 3분법적 범주: 은유, 환유, 제유. 한국근대문학연구, 1(17), 295-324. <https://doi.org/10.19050/korlit.2008.1.17.010>.
- 방창형 (2015).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수사학 기술에 의한 도자 미술 사조 연구[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우정연 (2020). 신라의 동물상징 한국의 동물상징.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2015).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 연설집. https://unesco.or.kr/130527_02/
- 임창호 (2004). 광고의 레토릭. 한울아카데미.
- 존 피스크 (2014).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강태완, 김선남 공역).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아영 (2010). 은유와 환유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ng, Chang-hyung (2015). A study on ceramic art trends by rhetorical techniques of postmodern art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Choi, A-young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etaphor and metonymy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Fiske, John (2014).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Kang, Tae Wan & Kim, Sun Nam, Trans.). Communication Books.
- Jakobson, Roman (1989). Linguistics in culture (Shin, Mun Soo, Trans.). Moonji Publishing.
- Kim, Eun-ju (2020). Connotative meanings and design possibilities shown in the expression elements of Jeonbuk Gaya pottery. Journal of Design Convergence Study, 19(2), 91-10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86271>
- Kim, Wook-dong (1999). Metaphor and metonymy. Minumsa.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d.). (2015). Speeches of Irina Bokova.

https://unesco.or.kr/130527_02/

Lim, Chang-ho (2004). Rhetoric of advertising. Hanul Academy.

National Museum of Korea (2023). A timeless journey, accompanied by a special companion [Exhibition catalog]. Cultural Founda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Park, Hyun-soo (2008). The trichotomous category of rhetoric: Metaphor, metonymy, synecdoc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1(17), 295-324.
<https://doi.org/10.19050/korlit.2008.1.17.010>

Park, Seong-chang (2012). The ever-blooming flower of rhetoric: Metaphor and metonymy. Minumsa.

Woo, Jung-yeon (2020). Animal symbolism in Silla and Korea.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